

억울한 옥살이 230일 ... 50대 가장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광주고법, 광양 강간상해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강간상해 혐의로 230여 일간 '옥살이'를 해야했던 50대 가정이 최근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가정은 검경의 수사와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지나치게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인과 헤어지고, 사업은 망했으며, 대학 재학중인 자녀도 휴학하는 등 인생이 망가졌다.

광양에서 사업을 하던 정모(52)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A(53)씨의 집 인근에서 A씨와 A씨 부인 B(45)씨 등과 술을 마신 것은 지난해 4월25일 오후,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피곤하다며 밤 10시께 집에 들어간 뒤 술자리를 이어갔던 정씨와 B씨는 술을 깨기 위해 공원을 거닐었다.

이후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A씨와 5~10분간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온 정씨는 5월8일 체포됐다. B

씨가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광양경찰서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는 정씨와 술을 마신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중요부위와 함께 얼굴·허벅지 등의 상처 등이 찍힌 사진, 그리고 찢어진 속옷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정씨는 "B씨의 요구로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있으나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객관적 증거보다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 1심 재판부 4년 선고 "공소사실 부족" 2심서 원심 파기

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이 선고됐

그러는 동안 ... 부인과 헤어지고 사업은 망하고 자녀들은 대학 휴학 "억울함 어떻게 보상받나"

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

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인근 벤치에 정씨와 B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문을 열었으나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B씨의 몸과 증거자료로 제출된 속옷에서 정씨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정씨가 사건 이후 B씨의 남편인 A씨와 5~10분간 대화를 나눴으나 B씨의 상처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는 B

씨의 상처가 사건 당시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같은 판단으로 지난해 26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자주 바뀌는 피해자 진술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 주변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했다면 어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심 선고 후 바로 상고했으며, 정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군인들 '헌혈 릴레이' 2일 육군 제31보병사단(사단장 박병기) 장병들이 헌혈차량 앞에서 신년 '사랑의 릴레이 헌혈'을 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랑의 릴레이 헌혈'은 지난 2001년부터 겨울철 부족한 혈액수급을 돕기위해 이어져 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로명 주소 시행 ... 집배원·경찰·택배업체 '진땀'

곳곳에서 혼선

2일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주소를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가 본격 사용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가 지난 1997년 사업에 착수, 2010년까지 투입한 홍보비만 93억원이 넘지만 낯설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잇따랐다.

북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A(45)씨는 2일 하루 동안 과거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가 섞여 적힌 우편물만 5통을 받았다. 예를 들면 '신안동 239-34번지'인 지번 주소와 '자미로26번길

28'로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를 섞어 '신안동 26'이라고 쓰인 우편물 때문에 일일이 보낸 사람에게 전화해 주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럼에도, "고맙다. 죄송하다"는 답변은 커녕, "그렇게 왜 바꿨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했다.

집배원들은 도로명 주소를 익히기 위해 시험까지 봤지만 지번 주소가 적힌 우편물이 80%가 넘어 두가지 모두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서도 비슷하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기록해야 하지만 상당수 피의자들이 새 주소를 모르다보니, 일일이 지도를

보여주며 찾아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예 상황실을 통해 내려오는 지령은 공적 문서임에도, 지번 주소로 내려오는 경우가 여전하다.

주민등록등본도 새 주소를 확인한 뒤에야 났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주소를 뒤적이지 바빴고 택배업체도 하루종일 부산했다. "지번 주소 말고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하느냐, 지번 주소 적어도 되느냐"는 배달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매번 답변해주다 보니 배달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게 택배업체 측 설명이다. 택배 배달원들은 길 찾기에 활용하는 내비게이션

앱도 도로명 주소보다 적용된 지번주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표시하지만 계약자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 탓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송연(여·28·광주시 북구)씨는 "온라인 소꿉물도 지번 주소를 쓰는 데가 많고 택배를 보낼 때 도로명 주소를 써도 무방하다고 하더라"면서 "공적인 민원 서류 빼면 굳이 알 필요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보일러 점검해 드릴게요" 독거노인들 집 들어가 기름통에 남은 석유 700ℓ 훔친 못된 석유업자들

광주북부경찰 2명 검거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노인들에게 무료로 보일러 점검을 해주겠다며 기름통에 남아있던 석유를 훔쳐온 못된 석유판매업자들이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일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보일러 점검을 해주겠다고 접근, 보일러통에 있던 석유 수백ℓ를 훔친 홍모(45)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7월3일 오후2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용

강동 송모(여·63)씨의 보일러에서 등유 80ℓ (시가 9만원 상당)를 훔쳐 등 9월까지 4회에 걸쳐 광주 북구 용강동, 동구 소태동 일대에서 시가 80만원 상당 기름 700ℓ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서비스 점검을 나왔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보일러를 살펴본 후 "기름벨브가 녹아 들어 기름이 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며 "작업을 하려면 기름을 다 빼야 하는데 시가 넣어주겠다"고 속였다.

홍씨는 피해자 대부분이 60~70대의 노인이라 남아있는 기름의 양을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노렸다. 자신의 유조차를 이용해 수백리터의 기름을 빼내고 실제 다시 넣어준 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씨는 자신의 유조차를 타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 번두리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홍씨는 보일러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했지만 홍씨의 접근을 수상하게 여긴 일부 피해자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안녕하십니까? ... 두려움 제가 가져갈게요"

서울역 분신 이남중씨 유서 ... 광주 YMCA에 분향소

지난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해 숨진 이남중(40)씨의 유서가 공개됐다.

국정원 시국회의 등으로 구성된 '시민장례위원회'는 2일 이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A4용지 2장 분량의 공개된 유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씨는 "공권력의 대선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며 "보이지 않으나 체감나는(체감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고인이 남긴 모든 유서에 신상을 비관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경찰은 정권퇴진을 외치며 결행한 고인의 죽음을 신변 비관 탓으로 몰고 가려는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광주로 운구해 노제를 지낸 뒤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할 계획이다. 광주 시국회의는 2일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 이씨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채팅으로 만난 여성 몸 더듬은 '영금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신체를 더듬은 '영금뿔' 30대 남성이 경찰서형.

○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임모(35)씨는 지난해 12월28일 밤 9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호프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A(22)씨의 허벅지와 뒷머리 등을 손으로 더듬었다는 것.

○임씨는 경찰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호감을 갖고 있던 A씨와 약속을 잡아 만나 술 마시며 얘기를 하다 마음에 들어 무심코 만졌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칠나라
DENDRO-PANAX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식당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메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물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과 영양
사과 영양
어느것도 놓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